

한우안테나 - News

◎ 축산국폐지 "축산 구심점 상실" "생산단체 기능강화" 팽팽

김정호 농림부 차관은 지난 26일 농림부 조직개편은 정부 혁신 차원에서 각 부처의 기능과 조 직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인 만큼 생산자단체와 조합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축산물검사검역청이 신설되지 않게 되면 축산국은 현행대로 존치될 것임도 덧붙였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국을 폐지하게 되면 전문성 결여는 물론이고 축산의 구심점이 상실되고 축산업의 위축이 가속화되는데다 시도 및 시군 축산과 폐지와 더불어 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축산신문 8월27일자]

◎ '한우경진대회' 줄이어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지역본부가 주최하는 도 단위 '한우경진대회' 가 올 하반기에 잇따라 계획돼 있다. 경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정용근)는 9월에 '제1회 경남 한우 고급육 및 초음파 육질진단 경진대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2001년 6월1일에서 9월30일 사이에 태어나고 혈통 등록 된 거세한우를 대상으로 한 고급육 경진대회와 지역축협 축산건설턴트가 참여하는 초음파 육질진단 경진대회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남도 역시 10월에 나주가축시장에서 '제27회 전남도 한우경진대회' 를 개최하며, 경기도는 11월에 '제4회 경기도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 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민신문 8월29일자]

◎ 축산단체,축협,학회대표 결의 조합장 서명건의문 제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축산관련학회는 지난 22일 농림부의 축산국 폐지를 저지하는데 서명운동 등 총력전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들 협의회는 이날 조찬 모임을 갖고, 축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동시에 축산국 존치의 필요성과 축산국 폐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축산국 폐지를 막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정부가 조직 개편 방안을 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것보다는 개편을 위한 개편이라는 인상이 짙은 만큼 지금이라도 축산국 폐지 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축산신문 8월25일자]

◎ 한우 암소도축 크게 줄었다

한우 번식농가들이 암소의 도축을 크게 줄이면서 암소도축율이 43%로 크게 낮아졌으며 특히 지난달에는 41%까지 낮아지는 등 암소 도축두수가 급감하고 있어 암소 고급육시장이 거세 고급육으로 전환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기대된다. 지난 7월의 소 도축실적에 따르면 한우 암소는 1만1천5백25두로 전년 동월 1만6천2백22두에 비해 4천6백97두(29%)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자에 따르면 올들어 한우 암소의 도축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송아지값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고가를 유지하고 있어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수익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번식의욕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또한 최근 암송아지값이 350만원선 까지 오르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암소를 도축하고 새로 번식우를 육성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천하제일사료 고급육생산연구모임, 日 축산인 초청 세미나

천하제일사료는 8월18일 여섯 번째로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연구모임을 갖고, 일본에서 직접 화우목장을 경영하는 축산인을 초청,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눴다.

이날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천하제일사료 민승기 부장(비육우 PM)은 올 한우사육 동향과 장단기 전망에 대해 "올 사육두수 증가는 도축두수의 감소, 특히 암소도축두수의 감소에 의한 결과"라면서 "본격적으로 송아지 생산두수가 증가하는 2004년부터는 사육두수의 증가 폭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본 시마네현에서 화우번식과 비육우 3천5백두를 사육하고 있는 송영목장 사장 마쓰나가씨는 '대형목장으로 향한 번식경영'이란 주제로 "규모가 큰 대형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번식우와 비육우를 일관사육 해야 한다"며 "이중 특히 번식우의 개량 및 계통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기이유(3일령)를 실시하고 있고, 더욱이 번식우의 개체관리(사료급여) 및 인공수정을 위해 개체별 잠금장치인 스텐치온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강원한우경진대회 개최

강원도가 주최하고 철원군과 철원축협이 주관하는 강원도 한우경진대회가 8월 28~29 양일간에 걸쳐 철원군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대회는 강원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산발전과 축산인 화합을 도모키위해 실시되며 한우품평회와 축산문화전시, 한마당행사로 강원축산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우품평회는 한우수소 수송아지 18두와 한우암소 3개부문 48두, 한우고급육 비육우 36두등 3개종목에 1백2두가 출품되었다

◎ “양주골 한우 한번 맛 보세요”

‘양주골한우’는 지난 19일 양주군 소재 송화가든에서 임충빈양주군수와 원대식양주군의회부의장, 윤기섭양주축협장 등 내빈과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및 시식행사를 가졌다.

양주군(군수 임충빈)과 양주축협(조합장 윤기섭), 양주골한우회(회장 김순재)가 공동 주최한 양주골한우 간담회 및 시식행사는 ‘양주골한우’ 브랜드의 차별화된 품질과 맛, 향후추진 계획 등을 홍보함으로써 앞으로 ‘양주골한우’를 브랜드 명품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순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주골한우 농가는 현재 20농가로 2천2백두를 사육해 평균 1등급이상 출현율은 73%이며 앞으로 양주골한우를 고급 브랜드로 육성, 지역명품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주골한우’는 지난 2000년 6월 12일 상표등록(특허청 등록 제0001330호)돼 있으며 양주축협의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료부터 거세 등 일관성 있는 사양관리를 통해 고급

육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회원수를 60농가로 늘려 4천5백두를 사육한다는 방침이며 연간 6백두를 출하목표로 하고 있다.

【축산신문 8월25일자】

◎ 축산연, 한우 섬유질 배합사료 워크숍 개최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경남)는 8월 27일 오후 1시부터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관련 산업계와 농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섬유질배합사료 급여 시험축 시식회, 국내외 섬유질배합사료 이용현황과 급여효과에 관한 주제발표(4주제) 및 현장연시회를 포함하여 3부로 진행된다. 축산연은 그동안 낙농분야에서 주로 이용하여왔던 섬유질배합사료 급여체계를 한우에 적용하여 농가에서 직접 농산가공부산물 등을 이용한 섬유질배합사료 시험을 양평 개군한우에서 시험하여 근내지방도를 4.7에서 6.8로,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을 44%에서 89%로 높여 20%의 소득증가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 "한우 암송아지값 초강세"

전국평균 한우 암송아지 값이 이 달 들어 340만원을 넘어서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360만원을 기록해 앞으로의 암송아지 값이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암송아지 한 마리 값이 360만원까지 오른 것은 사상 유래 없는 일이며 이는 현재 시세의 수소 500kg짜리 값(4백여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다. 반면 수송아지는 전국 평균 260여만원으로 암 송아지에 비해 80여만원이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우 사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우 암송아지 값이 이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송아지 값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 번식에 대한 의욕이 높아져 있으며 특히 암송아지를 새로 입식 시켜 번식을 시작하려는 농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암송아지 값이 수송아지 값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면 1년 정도 이후부터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나 소값과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역전현상에도 아직까지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가임암소와 도축두수를 고려해 볼 때 사육두수의 급격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송아지 설사병 백신 적기접종 예방

한우 송아지가 잘 걸리는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면역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협 등에 따르면 현재 한우 농가 상당수가 면역백신의 효과와 처리시기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어미소나 송아지에 주사를 놓고 있으며 더욱이 백신을 제때 접종하지 않아 송아지를 죽이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분만 전의 어미 소에게 면역백신을 주사하면 2~3주 지나면 설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힘은 초유를 통해 송아지에게 전달돼 태어나면서 면역을 갖게 된다.

또 송아지에게 직접 백신을 먹이면 10일 가량 지나 설사에 대한 면역을 갖게 된다. 이 전에 병원체가 침입하면 설사병이 걸리게 된다. 원유석 농협 한우발전기획단장은 "송아지 설사병은 대부분

생후 7일 이내에 발생하는 만큼 가급적 어미 소에게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분만 6주와 4주 전, 두차례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8월22일자]

◎ 신용덕, 우영목 공동위원장 선출

한우자조금준비위원회 첫회의가 8월 13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림으로써 한우자조금사업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한우자조금준비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갖고, 준비위원장은 농협과 한우협회측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에는 신용덕(밀양축협장)·우영목(한우협회 부회장)씨가 선출됐다. 공동준비위원회는 또 실무협의회를 양 단체 각 2인씩 4인으로 구성기로 했다.

공동준비위원회는 앞으로 대의원 선거 절차와 방법 등을 결정, 대의원을 선출하고 총회 개최를 통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이다.

이날 공동준비위원회는 한우자조활동자금의 추진계획에 대해 9월중 제2차 공동준비위원회를 개최해 시군구별 선출대의원 수 및 대의원 선출 등에 대한 협의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10월에서 11월 중 실시하고 대의원 총회를 11월 중 개최해 거출금 납부 등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동준비위원회는 늦어도 12월부터는 농가로부터 한우자조금을 조성해 내년 1월부터는 소비홍보 등 한우자조금사업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우자조금 거출은 대의원의 3분의 2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거출금의 한도는 평균거래가격의 1천분의 5이내이다. 한우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1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며 임기는 4년(감사는 2년)이다.

공동준비위원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공동위원장 신용덕·우영목 △박희수(괴산축협장) △정태호(하이마블회장) △황화섭(안동황우촌회장) △안병호(함평축협장) △김운철(농협 한우낙농부장) △김병선(한우협 경기도지회장) △이병오(강원대 동물자원과학대학장) △김영주(대한주부클럽 상임이사) △정규성(축산유통연구소장). [축산신문 8월18일자]

◎ 축산업등록 범위등 규정 축산법 시행령·규칙개정안

농림부는 지난 2002년 12월 26일 법률 6821호로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업등록제 도입, 정액 등 처리업 우수업체 지정, 등급판정대상 축산물의 확대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시행령개정안과 시행규칙개정안을 각각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 두 개정안 주요골자. <편집자><축산법시행령중개정령안>정액유통업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축산업등록제 도입에 따라 등록대상 축산업의 범위, 등록기준·절차,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즉, 축산업등록의 범위는 한육우의 경우 가축사육시설면 3백㎡, 젖소 1백㎡, 양돈 50㎡, 양계 3백㎡.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지렁이 등 짐승이외의 동물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타 가축의 범위를 종전 농림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에서 사육하는 동물로 확대했다. 오리·애견의 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개량대상 가축의 범위에 오리를 추가하고, 가축의 등록대상에 오리와 개를 추가했다.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가축두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 축사와 농장의 청결

유지, 종돈판매시 혈통증명서 발급, 종계에서 생산된 알만 부화하도록 하고 그 밖에 환경친화적 축산업 영위에 필요한 교육이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축산신문 8월18일자]

◎ 한우번식·비육농가 협조 '기쁨두배'

한우 사육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번식농가 모임인 화성한우번식회와 비육 전문인 음성 청결한우 농가들이 지난 2001년 11월 협조 체계를 이룬지 2년여만에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2년전 화성한우번식회에서 분양한 우량 송아지들이 24개월 가량 음성 청결한우 농가들에 의해 사육되어 도축한 결과 1+등급이 50%이상 나오는 등 매우 우수한 성적이 나와 이를 생산자들에게 각각의 도축자료를 알려주고 있어 개량을 위한 좋은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화성한우번식회(회장 이형복)는 화성지역 한우 번식농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돼 번식우(등록)를 5백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송아지는 능력을 개량하고 초유를 충분히 먹여 비육이 잘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음성 청결한우회(회장 김창현)는 비육농가들은 비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비육의 경쟁력이 높으며 번식농가들에게 도축결과를 알려주고 있어 밀소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한우거세우 품질고급화 주도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가 2003년 상반기중 발표한 축산물등급판정 결과에 따르면 소 등급판정두수는 29만1천4백99두로 전년동기보다 1만4천8백45두, 4.8% 감소했고, 이중 한우는 18만4천9백69두로 전체의 63.5%를 차지, 전년동기대비 3만1천9백84두, 14.7% 줄었다.

이 가운데 한우의 1등급이상 출현율은 전년동기보다 1.1%포인트 감소한 32.7%이었으나 한우 거세우의 1등급이상은 4.0%포인트 높은 51.2%로 한우고기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우지육의 kg당 평균가격은 1만4천74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천3백16원 상승했고, 등급별로는 최고 1만7천9백84원에서 최저 9천4백58원까지 차이를 보여 품질에 따른 가격차등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가격은 육량 B등급 기준으로 1+등급 1만7천3백57원, 1등급 1만6천5백4원, 2등급 1만4천8백16원, 3등급 1만1천3백77원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2천8백58원, 2천3백87원, 2천8백88원, 42원씩 상승했다. 이에 따라 거세우 1+등급과 수소 3등급의 마리당(생체 600kg 기준) 가격차는 2천38원으로 크게 벌어짐으로써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등판소는 내다보고 있다.

[축산신문 8월11일자]

◎ 한우고기 홍보중심 대회 운영키로

우리축산물브랜드전(10. 31~11. 2 예정)과 연계 개최되는 제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한우고기 홍보에 큰 비중이 주어질 전망이다. 특히 장래 한우 고기 소비 계층으로 성장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우 고기 홍보 계획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중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와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추진협의회(협의회장 장재영)는 지난 7일 경기 김포축협 회의실에서 기승중 김포축협장과 한우능력평가대회추진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제 2차 추진위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행사일정과 세부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 축산물브랜드전 농협·축산단체협 공동 개최

그동안 축산물등급판정소 단독으로 개최해온 축산물브랜드전이 올해부터는 농협중앙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공동으로 개최된다. 또 국제축산박람회에도 축산물브랜드전과 통합, 개최된다.

농림부는 축산물등급판정소의 기능과 역할이 등급판정을 하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 브랜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농협이 주최가 되어 개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여기에다 축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주최토록 함으로써 각 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토록 해 대대적인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격년제로 열리는 국제축산박람회도 축산물브랜드전과 통합, 생산과 소비가 어우질 수 있는 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수입생우 도축중단 진통

수입생우 유통감시단의 수입생우 도축 중단 요구로 수입생우가 또 다시 도축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수입생우 유통감시단(단장 문유상)과 한우농가 150여명은 7월 29일 경남 김해 소재 김해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고 수입생우 도축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해축산물공판장은 수입생우 유통감시단의 요구를 수용, 수입생우의 도축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한우협회 수입생우 유통감시단이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제당 무지개사료, 공주 비육농가 대상 세미나

"어떻게 하면 한우 고급육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대한제당 무지개사료는 이같은 물음의 답을 위해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제당 무지개사료는 최근 충남 공주시 유구농협과 공동으로 비육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세미나를 열어 비육우 농가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농가들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도와줬다. 이날 강사로 나선 무지개사료 오승훈 축우팀장은 고급육 생산을 위한 구성요소로 송아지, 거세, 양질의 조사료급여, 사료급여, 출하적기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특히 등급간(1+, 3등급) 6천원 이상/지육 kg의 가격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거세를 통한 고급육 생산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축산신문 8월7일자】

◎ 우성사료, 베트남 진출

우성사료(대표이사 염휴길)가 베트남 진출을 계기로 아시아 사료시장 공략에 돌입했다.

우성사료는 우성비나(WOOSUNG VINA · 법인장 박영선 상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19일 베트남 동나이성 통녓구 바우세오 공단내 7헥타의 대지위에 연간 2만톤 규모의 '새우사료 전용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으로 상업생산과 판매에 들어갔다. 우성비나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새우사료는 '드림(DREAM)'과 '타임(TIME)' 2종류. 이번 준공식에 앞서 지난해 11월 16일에는 베트남 우성비나 공장 준공을 위한 기공식을 진행, 현지인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이후 불과 8개월여만에 베트남 내에서는 최초로 익스트루더 가공방법으로 새우사료를 생산하게 되어 현지 새우사양가들은 물론 베트남 국민들에게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축산신문 8월4일자】

◎ 소 부산물 판매가격이 하향 조정

서울 축산물공판장(장장 박치봉)은 7월 16일 소 부산물 가격사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물 판매가격을 하향 조정했다. 부산물 가격이 인하될 경우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그동안 미뤄왔으나 수입 부산물의 급증으로 국내산 부산물 수요가 크게 감소돼 국내산 부산물 재고가 계속 누적되는 등 유통업자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이번에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된 부산물 가격(생체 500kg기준)은 우두의 경우 한우는 암(33,310원→29,990원), 수(86,710원→78,040원), 거세(59,990원→54,010원) 모두 10%, 육우는 암(18,000원→15,490원) 14%, 수(55,900원→48,640원) 13%, 거세(43,200원→38,030원) 12%가 각각 하향 조정됐다. 우족의 경우 한우는 암(90,590원→86,060원), 수·거세(161,750→153,660원)으로 5% 인하된 반면 육우는 암(45,710원→19,290원), 수(84,100→63,080원), 거세(78,400원→58,810원)로 25%가 하향 조정됐다. 또한 내장은 한우 암소(49,478원→45,522원) 8%, 거세(45,051→41,900원) 7%, 육우 암(61,592원→55,453원) 10%, 거세(69,092원→66,345원) 4%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한편, 이번에 인하된 부산물 가격은 7월 28일 도축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축산신문 7월30일자]

◎ 한우고기 생산이력 식탁에서 확인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정남)는 7월 16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성축산진흥공사에서 한우육이력정보시스템실용화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정규박사(경상대학교)는 한우육이력정보시스템은 소비자가 수입육과 한우육을 판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한우육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회복 및 소비증대 방안 모색, 정보가 부여된 포장육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를 생산자에게 피드백(feed-back)시켜 품질개선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갖고 축산기술연구소와 (주)스피드칩, 국립경상대학교, 국립한경대학교가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우육이력정보시스템(Traceability)은 'Trace'와 'Ablity'의 합성어로 추적가능성 즉, 축산업에 있어서는 생산물의 생산, 도축, 가공, 소비, 유통이력에 대해 추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지난 2001년 8월부터 2년간 남해 화전한우회를 모델로 기술 개발을 했다.

한우육이력정보시스템은 한우고기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축산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전달되는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원지를 역 추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일본에서도 식중독과 광우병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이력정보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덴마크의 가축 개체식별체계, 프랑스의 이력정보체계 등이 실시되고 있다. 한우육이력정보시스템을 이용 생산된 소고기를 7월 25일에서 내달 초순경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축산신문 7월21일자]